기획특집 오늘의 '문민'언론을 진단한다

'비판자'로서의 언론 / 비판 받을때

공정성·형평성 잃은 편향된 보도 다양한 국민의견 균형있게 다뤄야

UR협상 보도의 정보원을 정부와 외신에만 의존, 시민·농민·학생들의 의견수렴은 부족한 상태…

새정부가 출범하자 유난히도 재산공개 파동, 한약분쟁, 3대 대형참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파동, 북핵문제 등 큼직하면서도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우리언론은 이들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었다.

우리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접한 사건(정보)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며 이를 통해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바로 여기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한 일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실을 진달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해가야 할 언론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중실히 다하고 있는가-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도하는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결국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글을 통해 새정부 출범이후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보고 우리 언론의 실상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특히 필자는 필자가 속해 있는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에서 개최했던 UR 보도경향에 관한 심포지움의 내용을 많이 참고했다. 이유는 국가적, 국민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UR협상과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우리나라 언론의 실상을 특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데 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언론이 UR협상 보도에 대해 어떤 보도태도를 견지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을 파헤쳐 보겠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여 조선, 동아, 한겨레, 중앙, 서울신문 등 5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UR협상 보도경향을 분석했던 김연종(서강대 신방과 강사)씨의 연구논문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교수는 연구분석을 통해 우리언론의 UR협상보도가 협상타결일인 93년 12월 15일을 기점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기간에 언론보도가 집중되어(기간중 전체 보도건수가 2천2백77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 중 보도건수는 전체 보도건수의 73.9%에 해당하는 1천6백3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26일 이전의 보도건수는 6.5%에 해당하는 1백48건에 불과함) 있음을 확인하였고, 보도의 주제 역시 쌀문제를 중심으로 몇가지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있어 정보원은 정부와 외신에 특히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시민·농민·학생을 정보원으로 삼는데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도의 대상(누구를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했는가)으로도 정부와 외국대표를 우선적으로 삼았으며 학생, 시민, 농민 등에 대해서는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언론의 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우리언론은 UR협상을 장기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피상적으로 봄으로써 협상을 단순하게 선진강대국의 압력이라는 차원으로 보도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7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온 지속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없어 순발력 리트즘에 기초한 동정론의 모습이 역력했고 선정주의적 보도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그는 우리 언론이 UR협상 보도에서 기대만큼의 역할 수행에 실패하고, 상황인식의 결여와 편향된 보도관행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상황판단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런 그의 지적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언론에 대한 평가를 내림에 있어서 제기해 왔던 내용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이렇듯 우리언론이 갖고 있는 한계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필자가 심포지움을 경청했던 경험을 참고로 새정부 이후 언론이 보여 온 보도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사간의 과열경쟁(중면경쟁 등)으로 인한 선정적이고 흥미본위의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사건에 대해 일시적이고 극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삼정부의 등장이후 진행되었던 개혁드라이브 재산공개 파동, 부정부패 척결의 움직임은 실제 많은 '사람들의 물갈이'라는 결과를 낳게 했는데,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인생무상'이라는 표현 등을 써가면서 한편의 인생극장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재산공개 파동시에는 '모의원의 재산이 엄마다'는 식의 본질을 외면한 흥미위주의 보도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낙동강 오염사건에서도 본질을 외면한 채 '오염도가 엄마다'는 식의 기사를 양산해내는데 열을 올리기도 했었다. 결국 이같은 우리나라 언론의 관행은 UR협상이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극적인 '사건'을 보도하는 듯한 태도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7년간이나 지속되었던 UR협상과정에 대한 언론보도가 하나의 일시적인 사건을 극적으로 다루는 식이었다는 점은 김연종씨의 지적은 되새겨볼 만한 것이다.

둘째, 우리언론은 여전히 보도의 결여, 소극성 등 언론자체의 문제에서 연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다수의 정보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임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자들의 취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오늘날의 언론과 언론환경의 현실은 사건(정보)을 사실에 가깝게 전달하고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도모하면서 합리적인, 효과적인 대안과 결론을 이끌어야 할 기본적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한약분쟁에서, UR협상의 보도에서 보여준 언론 보도태도의 한계가 여실히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은 과거의 타성에 젖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판능력이 뛰어난 것이 언론이라고 한다. 사회의 감시자로서, 비판자로서 여론을 이끌어감으로써 이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이 올바른 비판이라면 결손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쇄신의 계기로 삼아 가려는 자세를 간직하고 진정 국민의 언론으로 다가가기 위한 과감한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해본다.

남 택 훈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간사〉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학술시리즈 ㊿ 암과 바이러스

암이란 신체의 일부조직이 정상적인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증식하게 되는 질환이다. 현재 바이러스는 각종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외에도 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이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할례라는 것을 한다. 이는 일종의 포경수술로 할례를 통해 비로소 책임있는 한 남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할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에서는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의 발생빈도가 다른 민족보다 낮다. 또 생활환경이 저급한 집단에서 성생활이 난잡한 집단에서의 자궁경부암의 발생 빈도가 높음이 알려졌다. 이는 남성의 위생상태가 여성에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 바이러스들이 인체에서 나타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사마귀를 들 수 있다. 사마귀는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일종의 양성종양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원인의 암으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 유두종바이러스 또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타입 2에 의한 자궁경부암, Epstein-Barr바이러스에 의한 림프종 및 비인두암 등이 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는 직접 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암의 발생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암의 발생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사람세포나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일부 유전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유전자를 '암유전자'라고 부르고 있다. 바이러스에 의한 암유전자의 활성화가 종양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몇몇 동물실험에서는 규명되었으나 사람종양의 발생기전에 있어서의 암유전자의 역할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정상세포의 세포성장과 분화조절기전에 관여한다는 신빙적 증거가 점차 확인됨에 따라서 암유전자에 관한 연구는 현재 종양발생기전 규명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DNA형 종양바이러스인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DNA가 숙주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종양화가 진행되며 RNA형 종양바이러스인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RNA가 숙주세포 내에서 DNA로 변환된 후 숙주세포의 DNA에 끼어 들어가 종양화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모두에게 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마도 암의 발생에는 이외의 환경적인 자극들이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정상통제 벗어난 자율적 증식질환

유 승 민
〈대학원 박사3기·의학〉

세시봉

'정치속의 종교(?)'

엘리오 모리코네의 서정적 음악이 깔린 종교영화 '미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18세기경 청주교는 남미 대륙 각지에 대규모의 전도를 시도하였다. 전도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3국에 걸쳐 주로 실시되었는데 이파수 폭포 위 파라나강 연안의 삼림지역에 있는 문명이 스며들지 않은 '과라니'족에게도 가브리엘 신부의 전도가 미쳐왔다. 노예로서밖에 인식되지 못했던 그들은 가브리엘 신부에게 모국어를 쓰고 읽는법,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의 자급자족, 건축, 음악, 미술 등의 수준 높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나갔으며 남미 전 교구중 가장 이상적인 공동사회를 실현해 나갔다.

이렇게 한창 전도가 진행될 때 남미를 정복하려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각자 영토를 한정짓는 마드리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조약에는 남미 각지에 흩어진 전도사를 철수시켜 천주교세를 줄이려는 의도 또한 깔려 있었다. 그당시 유럽에서 천주교 본부는 천주교를 탄압하는 포르투갈의 수망의도를 간파하고 있었고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편입된 파라나강 연안에 있는 교구 또한 폐쇄 철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이파수 폭포 위에 이상교구를 건설한 파라니 인디오가 부신론자의 조종하에 있는 포르투갈 왕의 식민지로 편입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교구 폐쇄 결정과 뒤이은 무력 종교

탄압에 파라니족은 결국 불응하게 되고 가브리엘 신부와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죄책감을 극복하고 신부가 된 멘도샤는 철수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결국 파라니족과 함께 교구를 지키기 위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영화에서 편혹지는 종교의 성스러움과 존엄함을 깨달아 가는 한 부족의 내적 성장과정과 신부의 구도 노력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단조로운 배경음악에서 전달되는 평화로움과 고아함, 이를 통해 전달되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은 종교의 의미와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실마리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인간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종교는 변함없이 그 순결함과 신성함을 인정받아 왔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오해와 이기주의로 얼룩진 세상사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세상이 뭉입없이 정화될 수 있는 까닭이다. 모든 종교의 본질에는 '미션'의 가브리엘 신부가 품었던 진실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이번 조계종 폭력사태에 관련해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진국에서 3핵여명의 폭력배가 현 총무원장의 3선을 반대하는 승려들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된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는 정치비리에나 동용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진상조사특위'가 가동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수시당국은 신속한 조사와 단죄를 게을리하고 있다. 자칫 종교의 신성한 모습이 흐려질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은 종교 총사자조차 정치권과의 야합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인 듯하여 안타까움을 뿐이다.

(박경화 記者)

서울랜드가 바로 곁에 있어요- 지하철 과천선 대공원역 하차

지/하/철/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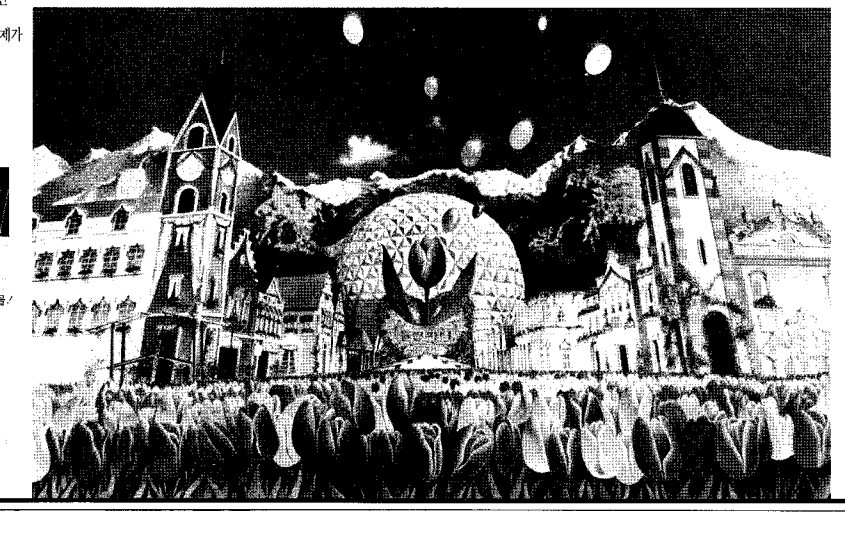
봄/을/맞/는/다! 서울랜드 튤립파티 4월

과천선 지하철 개통과 함께 더욱 가깝고 편리해진 서울랜드!
옹봉 짙은 튤립 향기 속에서 아름답고 신나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지하철 개통기념으로 드리는 사랑의 꽃씨도 받으시고 온가족이 다함께 서울랜드에서 봄기운을 마음껏 누리세요.

봄이 가장 가까운 곳, 서울랜드의 튤립파티 행사!

1. 아그(Yag)레이저-쇼 기존 레이저-쇼 보다 100배 강한 YAG기기 공정의 음악에 맞춰 화려한 레이저 빔 향연을 연출! (세계최초공개)
2. 튤립파티 특집 퍼레이드 (매일) 한국최초의 기차형 꽃차와 함께 아롱이, 다롱이, 무궁단의 행진!
3. 사랑의 꽃씨 나누어주기 (6.8까지) 서울랜드 정·후·동문에서 선착순 1,000명에게 무료로 드리는 선물!
4. 유럽 집시공연단 및 뽀에로 초청공연 출연 : 루미나와 대사관
5. 쇼-팡파르!
6. 쇼-류-류-튤립! (매일)
7. 튤립왕자·공주선발대회 (일·공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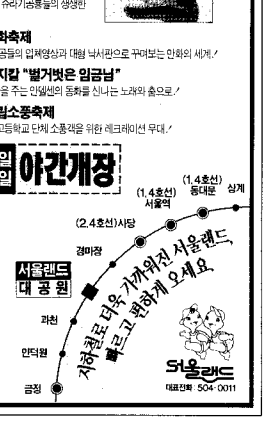
KBS-2FM공개 특집 방송 "봄" 음악축제
일시 : '94.4.17(일) 오후 2시 장소 : 삼천리 대극장
출연 : 김현철, 이은미, 박정운, 최연제, 이승환, 강수지, 김원준, 김혜림, 손지창, 김민종, Mr 2, 듀스, 어태선 밴드(10인조)



올봄 온가족이 꼭 한번 서울랜드에 가야할 이유!

1. 살아있는 공룡전 국내최초로 컴퓨터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쥬라기공룡들의 생생한 모습
2. 만화축제 만화주인공들의 입체영상과 대형 낙서판으로 꾸며보는 만화의 세계!
3. 뮤지칼 "벌거벗은 임금님" 꿈과 희망을 주는 안델센의 동화를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4. 튤립소풍축제 평일 중·고등학교 단체 소풍객을 위한 레크레이션 무대!

토·일 공휴일 야간개장



서울랜드 대표전화 504-0011